

# 형 법 (9 급)

(과목코드 : 132)

2021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죄형법정주의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재판 시에 해석을 달리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 ②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와는 달리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③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④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향로 변경죄)의 ‘향로’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2.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특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형법 제15조 제1항은 인식한 사실이 발생한 사실보다 가벼운 추상적 사실의 착오만을 상정하고 있다.
- ㄴ.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해 놓아둔 농약 1포를 투입한 농약을 A의 장녀 B가 마시고 사망한 경우 갑에게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 ㄷ.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갑이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갑에게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 ㄹ. 공무원 아닌 사람이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주체의 착오로서 과실범이 문제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3. 다음 사례 중 괄호 안의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사장 이하 간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응접탁자 등을 들었다 놓았다 하거나 현수막을 만들어 보이면서 시위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경우(공갈죄)
- ②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본범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본범의 사기행위 결과 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장물취득죄)
- ③ 강제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인도명령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절도죄)
- ④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흥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흥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특수강도의 준강도)

4.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다.
- ② 모텔의 화재가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 발생 사실을 알고 모텔을 빠져 나오면서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한다.
- ③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진정부작위범이다.
- ④ 소방대원이 화재가 난 집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으나 불길이 너무 강해 구조할 수 없었을 때에는 구조할 작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5. 다음 중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에 격분한 아내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②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 ③ 주인의 고의나 과실없이 공격해 오는 주인있는 동물을 살해한 경우
- ④ 국가가 소유하는 건물이나 물건을 방화, 절도하는 자를 격퇴하는 경우

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乙의 처 丙과 큰딸 A의 머리를 강타하여 실신시킨 후 이불로 뒤집어쓰우고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집을 전소케 하고, 불이 붙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둘째딸 B와 셋째딸 C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방문 앞에 버티어 서서 지킨 결과 丙과 B, C는 현장에서 소사하였고, 화상을 입고 탈출한 A는 입원치료 중 사망하였다.

- 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중한 결과발생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된다.
- ② 현주건조물 내에 있는 丙과 A를 강타하여 실신케한 후 건조물을 방화하여 사망케한 피고인을 현주건조물예의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한다.
- ③ 방화행위와 문을 막아 탈출하지 못하게 한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범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이다.
- ④ 피해자 B와 C에 대해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7. 다음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의사가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의 머리부위 진피층까지 찔러 넣는 방법으로 수여부에 모발을 삽입하는 행위 자체 중 일정 부분을 직접 하도록 맡겨둔 채 별반 관여하지 않은 경우
- ② 구호를 외치거나 노동가 등 노래를 합창하고 또는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며 행진하는 행위가 병원의 업무개시 전이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 ③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경우
- ④ 실내 어린이 놀이터에서 자신의 딸(4세)에게 피해자가 다가와 딸이 가지고 놀고 있는 블록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들면서 쌓아놓은 블록을 무너뜨리고, 이에 딸이 울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몇 차례 피해자를 제지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딸의 눈 쪽을 향해 오른손을 뻗었고 이를 본 피고인이 왼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충격방지용 고무매트가 깔린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끔 한 경우

8.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책임을 범죄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으로 이해한다면 책임능력은 곧 범죄능력을 의미한다.
- ② 스스로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의 감경 등을 할 수 있다.
- ③ 14세 미만인 자에게 형벌을 과할 수는 없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과할 수 있다.
- ④ 법원이 피고인에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채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9.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의 착오란 위법성의 인식 없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 ③ 법규정을 몰라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가 된다.
- ④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는 행위자의 범의가 조각되어 벌하지 않는다.

10. 다음 중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많은 피가 흘러나오자 겁을 먹고 그만 둔 경우
- ② 피해자의 어린 딸이 옆에서 울고 피해자가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다고 하면서 더구나 임신중이라고 사정하자 강간행위를 그만 둔 경우
- ③ 강간하려고 폭행했으나 피해자가 수술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자 강간행위를 그만 둔 경우
-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협박하다가 피해자가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을 하자 강간행위를 그만 둔 경우

11. 다음 설명 중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기관총을 발사하여 여러 사람을 살해한 경우
- ㄴ. 감금행위가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에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 ㄷ.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 ㄹ.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한 타인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
- 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동일인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ㅁ

12.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 할 때에는 몰수의 요건이 있더라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없다.
- ② 가석방은 무기징역의 경우 20년이 경과한 후,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능하다.
- ③ 벌금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 ④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13. 물수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 ②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보인 경우 위 수표가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이상 이를 몰수할 수 있다.
- ③ 오락실업자, 상품권업자 및 환전소 운영자가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서 경품으로 배출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그 수수료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환전소 운영자가 환전소에 보관하던 현금 전부가 위와 같은 상품권의 환전을 통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 하였거나 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
- ④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에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

14. 형의 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형, 1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 구류, 과료, 물수에 대해서는 선고유예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형법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없다.
- ③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선고가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선고유예를 할 수는 없다.
- ④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행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15. 다음 중 옳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고현장을 목격한 일이 없는 선서무능력자에게 부탁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법정에서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은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
- ②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③ 신용카드를 제시받은 상점점원이 그 카드의 금액란을 정정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카드소지인이 위 점원에게 자신이 위 금액을 정정기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양 기망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는 간접정범에 의한 유가증권 변조죄가 성립한다.
- ④ 경찰관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A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하여 A에 대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일련번호가 동일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에 B의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케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B의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케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16.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필요가 없다.
- ② 상해죄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과 함께 상해를 가할 의사가 존재해야 한다.
- ③ 특수폭행죄의 경우 위험한 물건의 휴대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중상해의 고의로 상해행위를 하였으나 단순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한다.

17. 다음 중 동시범(독립행위의 경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독립행위가 경합한다는 것은 범인들 간의 의사 연락없는 2개 이상의 행위가 동일한 객체에 대해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 ② 상해죄에 대한 동시범의 특례 규정은 폭행치사, 상해치사와 같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경합하는 독립행위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결과가 아예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2개 이상의 행위가 다른 시각,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시범이 문제될 수 있다.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 ② 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 ③ 회사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이다.
- ④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19.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이 평소 읍이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으로부터 취득한 을의 범죄경력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병에게 보여주며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
- ③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④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연히 적시한 경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0.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인 경우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범과 피해자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이 면제되지만, 장물범과 본범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③ 외할머니의 친동생은 친족상도례에서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21.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기망을 통해 영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②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다.
- ③ 소송사기죄는 승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현실적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 기수에 이른다.
- ④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가 자신의 처분행위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하여야 한다.

22.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수도주
- ② 특수강도
- ③ 특수상해
- ④ 특수절도

23. 다음 중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경우
- ② 무고사실중 일부가 혐의없음이 밝혀졌을 뿐 나머지 무고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③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 ④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

24. 공동정범의 성립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다수의 사람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고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
- ㄴ.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범들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 ㄷ.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
- ㄹ. 선행행위자의 실행행위의 일부 종료 후 후행행위자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에 가담한 경우
- ㅁ. 공동가공의 의사가 공동행위자 중 일방에게만 있는 경우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25.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 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 ③ 퇴임 전 공모한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직권남용죄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에는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더라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없다.